

1989.9.8 한국일보

(5)

第12587號

(第3種郵便物(ガ))

요즈음 소득수준이 많이 향상된 탓인지 살피고 마시고 절든 사람의 수가 젤지 않게 늘어만간다. 대형 갈비집이나 보신탕집이 그런 벸를 파헤친 도시근교 숲속에서 성인용이고 포장마차부터 살풀에 이르기 까지 술집이 학교나 주택가 동네골 목까지 침입하여 위세를 떨치고 있다. 술소비량의 증가는 기록적이며 양답배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휴일마다 고속도로를 메우는 차량과 전국 산야를 뒤덮는 행인과 를 보면 우리가 정말 태평성대에 살고 있듯 편안한 작곡을 일으킨다. 시각이 넓고 훌륭한 사정에 여유 가 생겨서 먹고 노는데 야 남녀노소 를 가릴 필요가 없겠지만 사회 각분야의 충동전구 성향으로 자처하는 인사 들의 일상생활도 많은 경우 좋은 책을 읽기보다 오히려 주간지나스포츠신문을 즐기며 바보만 드는 상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TV를 청하는 것으로 학교를 마감하는 것 이 보통이다.



時評

未相境

문화를 부설하거나 봄은 경주기 대
봉이다. 또 요즈음의 젤은 세대
야식에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취학전부터 피아노 미술 음악
권도 수영 속殇을 이루 헤아릴수
이 많은 학원교습을 거치는 동안
랑을 달弄得 받고 넉넉한 마음과을
른 이격을 협정할 기회를 박탈당
채 성장하면서 過保護하여 초중

기후도 많고 텔레비전은
마리와 춤을 추는
여자는 아니한 솔itude 삼만한 마을을
되거나 차운에 진출한 후에
직장에서도 모자라는 지식을 보
았을지도 모르겠다. 밤을 가리지 아
하고 뛰어나온다면 수년내에
진실이 고발되어 절인 배후를 모
아 되고 만다.

을 염후라고 한다. 최근에 노동
성이 단축되고 일들이 인성화된 데
가 유익성을 대폭 증가시켜 좋았
던 갑자기 생겨난 여가와 인성화
를 학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와 관계로 정립되어 있지 않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양성한
의사가 사람을
는 수 있고 부실한 법조교육이
의 이론과 재상에 들이킬 수
'피해를 기울 수 있다. 개선된
조건이 상호 농농산성이 향
지 아니하면 21세기의 태평양
의 주역이 되기는커녕
경쟁에
않어 사순 게 지 들어
들여온 경쟁에 걸리게 되고 전문가

가. 되겠지 하는 유행을 봐라면서
이를 철없이 지나다가 5천년
간대한 이웃인 중국에 등화되어
나고 자주성을 지키면서 풀기자
나쁜 우리민족의 강인학이
간에 사라져 척결한 국제경쟁
에서 어이없이 도태되어버리는
선물을 우리는 벌할주는 없지

미리와
가슴이 텅 빙
社會

틀이 나는 날도 가족에게 볼사한
다는 뜻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행
사를 위하여 대물을 나서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끼끼끼 모여 앉아
서 포카나 고스를 치기도 한다.
뿔을 치거나 마작을 하는 것은 다
소부유족이 하는 술거리를하고 한
다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주차장
시멘트 바닥이나 놀이터에서도 열쇠

이 노름판을 벗이고 있으니 어린
녀를 앞에서도 체면이 서지 않는
것. 가히 우리나라 전체가 향락장
로 범해버린 느낌이라면 지나친
현실일까.

교과정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파외교부의 덕택으로 일단 대학
들어간 후에는 데모 농성 동맹
학 수업부동으로 넓이 새지만
단 승차한 후에는 목적지까지 데
나주는 기차와도 같이 시간만 지
면 출입장을 빌고 나가서 사회인
대열에 끼게 된다. 이처럼 강의
이나 실험실에서 제대로 실력을

기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실한 학교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극히 소수적인 직장생활 수년만에 둘째 마이 피폐해지는 이사회의 종결인에게 머리를 다시 충전하고 누적 피로를 씻어낼 기회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번 추석은 생산적뿐만 아니라 일방적으

나태한 분위기로 빠져들게 되고
이것이야 말로 늘어文化나여
용의 차원을 넘어서 전국민의
적 무능화와 정서고갈의 악순
장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가
주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
영기각에 걸쳐서 각분야에서 서서
나타나면서 과소비로 인한 저축
근면자조 혈통을 몰락하고 개를

어져서 회화의 눈물을 흘리게
것이 분명하다. 그 사회의 기강
력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희망
새로운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을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히 퍼져가는 우려와 체념과 자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하여
과 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